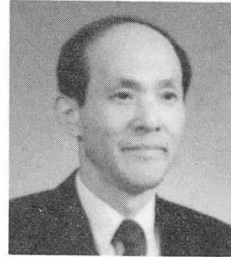


당분간 보합세후 내림세 예상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1. 머리말

금년은 장마가 일찍 오고 기간도 길어 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이다. 서울시내에는 곳곳에 신축 및 개축의 공사장들이 많아서 가뜩이나 교통지옥을 가중시킴을 보면서 뭔가 건축경기의 회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관심사는 교통침체라도 좋으니 돼지 가격만 올라가고 기원해본다.

2. 관련산업의 동태

축산업에서 낙농·육우 등 소(牛)분야와 돼지·닭을 놓고 볼때 한우의 시세가 호황을 유지하면서 폭등세의 불을 끄기 위하여 지난 6월 16일자로 수입 쇠고기의 가격인하(10%)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요즈음 수입 쇠고기의 선호도가 떨어진 것인지 하루 250톤이하로 방출되고 있다는 관계 기관의 말이다. 작년 이맘때는 수입 쇠고기가 하루 400~450톤씩 방출되고 소비되었으나 요즈음은 하루 300톤방출 계획임에도 소비가 안되는 상황이다.

한편 양계분야는 현재 산란계는 난가의 불황으로 고

전이지만 육계는 매우 좋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2개월전 업계의 협의로 감축실행을 한 결과인 것이다. 병아리들은 땅에 묻을 때의 아픔으로 요즈음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다.

업종별 자조사업이란게 자조금 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같은 협동단결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는 모돈 10% 감축운동을 전개했었다. 종든쌔든 양돈업이란 같은 우리에서 어느 한 곳에 구심체가 되어서 같은 뜻과 같은 행동이 있어야 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오늘(6/22)도 쇠고기 협상을 위하여 축협중앙회를 위시하여 생산자 단체들이 대거 출동하여 시위를 하였지만, 우리의 시장은 국내시장이 국제시장화로 치닫고 따라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협동 단결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3. 유통정책제도 어떻게

지난 월말에 축산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농림수산부 주최로 있었다. 각 사안별로 제시된 안들 중에는 등급제(A급-E급)가 축공을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이에따라 등급사들도 시군 도축장에 배치된

“
6월 22일자 서울3개 도매시장의 평균 지육단가는 2,206원이고, 규격돈은 2,292원<축공>으로서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겨울의 자돈들은 출하기한이 거의 다 지났으니 앞으로의 출하대상돈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전개될 것이다.
 ”

것으로 안다. 따라서 앞으로는 등급판정 도장이 찍힌 도축산물은 서울 반입이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송비용을 절감시키고 유통상의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가격 안정을 위한 상하한가 설정과 그에 따른 조치라 하겠는데, 여기서 한우는 계속하여 시행계획이나 돼지는 제외시킨다는 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고유의 한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고 돼지는 업계별로 자조금 운영을 하든지 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즉 행정주도 방식에서 농민자율과 자립위주 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자조금제도가 입법화 되어질 승산이 다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출원료돈의 규격제한은 105kg~120kg으로 조정되었다. 본회가 건의한 95kg~125kg에는 미흡한 것이나 종전 105~110kg에 비하면 여유가 증가된 셈이다.

4. 여름철의 경기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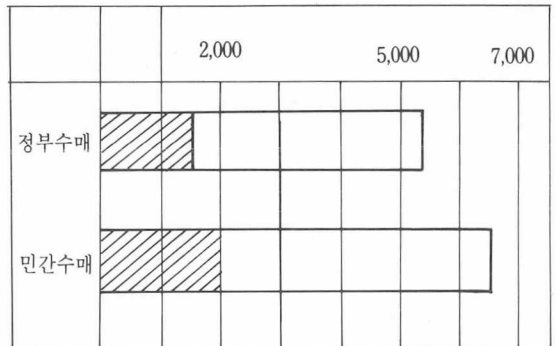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 왔다. 예년의 예로 본다면 6월의 시세에 비하여 7월의 시세는 하향된 것이 통례이다<표1 참조>.

<표 1> 연도별·월별 돼지가격 변동

년 도	6월	7월	8월
'86	2,850	2,779	2,627
'87	2,090	1,824	1,698
'88	2,030	1,824	1,934
'89	1,634	1,576	1,623
'90	2,932	2,368	2,895
'91	3,152	3,160	3,039
'92	2,434	2,326	2,352
평균	2,446	2,265	2,310

수매비축된 돼지고기는 전체 1만2천톤 중에서 약 70% 정도는 소진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표 2참조>.

<표 2> 돈육 비축량



재고량은 3,500톤 미만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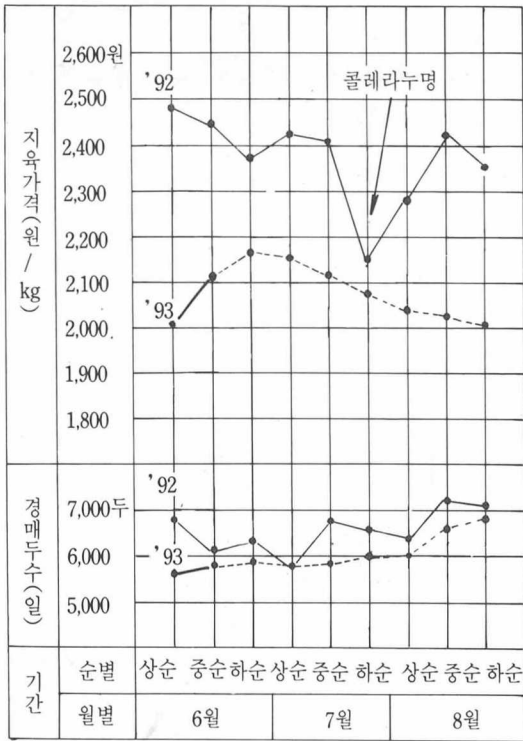
5월의 사료생산량은 4월의 344천톤에 비하여 약간 줄어든 340천톤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예년의 통계치가 4월생산 보다는 5월생산량이 늘어났는데 반하여, 오히려 감소량은 그만큼 출하 대상돈이 줄었다는 증거가 된다<표 3참조>.

<표 3> 연도별 월별 사료 생산량


년 도	4월	5월	비 고(%)
'90	268	286	18(6.3)
'91	290	301	11(3.7)
'92	332	339	7(2.1)
'93	344	340	▲4(1.2)

<표 4> 가격전망

(서울 3개시장 기준)



그런데도 가격이 오르지 못한 점은 그 원인을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2,100원~2,200원을 유지하는 그나마 모든 경기의 불황중 호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6월 22일자 서울3개 도매시장의 평균 지육단가는 2,206원이고, 규격돈은 2,292원(축공)으로서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겨울의 자돈들은 출하기한이 거의 다 지났으니 앞으로의 출하대상돈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7월의 시세는 크게 기대할 바가 못되는데, 단지 장마철이 되면 먹자판은 성행되는 것이니 희망을 가져보기 바란다. 앞으로 전개될 전망은 <표 4>를 참조바란다. 



툰 밥 툰밥구입에 어려움을 겪지않으십니까?

이제 걱정마십시오.
저희 동신목재에서 툰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귀하의 소득을 증진시켜 드릴 것입니다.

동 신 목 재

대표 : 곽 춘 신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촌동 90-1
전화 (032) 574-2832